

# 아시아 지역 시민사회 농촌개발협력을 통한 성평등과 생태시민성의 실천: 인도네시아 귀환이주여성을 중심으로\*

김효정 에코페미니즘연구센터, 부소장

본 연구는 기후위기 시대 아시아 지역 시민사회 농촌개발협력, 특히 인도네시아 귀환이주여성 중심의 임파워먼트 지원사업을 통해 이들이 어떻게 대안농업을 실천하고 새로운 농민 공동체를 구성함으로써 성평등과 생태시민성을 실천해 나가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지속가능발전에서 젠더와 환경 문제는 크로스커팅 이슈로서 중요한 목표이자 전략으로 다루어져 왔고, 생태시민권은 지구적 기후변화의 문제에 대응하는 새로운 생태윤리이자 실천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국제개발협력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성평등하고 지속가능한 생태시민권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충분치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 서자바 지역 중에서 해외이주여성의 비율이 높은 짜안주르 지역의 귀환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대안농업 교육 등을 지원하는 시민사회 농촌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여성주의 사례연구를 통해 이들이 어떻게 농민이 되어 가고, 여성농민 독자 조직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지를 생태적 힘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이들이 어떻게 조직의 외연을 확장해 가고 마을과 지역의 생태위기에 적극 대응하는지를 성평등과 생태시민성의 측면에서 규명하고 있다. 연구 결과 짜안주르 지역 여성농민들은 농촌개발협력 사업에 참여하면서 대안농업을 통해 생태와의 관계성을 변화시키고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생태적이고 시민적인 경험 세계를 재구축해 나가는 동시에 지역의 사회변화를 이끄는 행위자로서 새로운 주체되기의 과정을 발현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대안농업운동을 통해서 땅, 종자, 작물과 같은 생태 전반을 변화시키는 가운데 가족, 마을, 지역에 착근된 가부장적 불평등 구조와 여성 시민권의 부재에 대항하는 적극적인 행위자이자 변화자로 변화하고 있었다.

**주제어** 기후위기, 생태시민성, 성평등, 시민사회, 농촌개발협력, 인도네시아, 여성농민, 귀환이주여성, 임파워먼트

## I. 문제 제기

본 연구는 1970년대 이후 국제사회의 수많은 여성농민 대상 임파워먼트(empowerment) 프로젝트의 지역적이고 초국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성농민의 시민권 확보와 농촌 지역의 성평등은 왜 충분히 실현되지 못했는가 하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한편으로 본 연구는 여성농민을 둘러싼 기존의 불평등 문제와

\* 본 논문은 김효정(2022), 『인도네시아와 한국 여성농민의 대안농업운동을 통해 본 '생태시민되기'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 중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더불어 현재의 기후위기와 생태적 재앙에 직접적인 피해를 경험하는 여성농민의 현실에 대응하는 새로운 시민권 논의를 긴급하게 요청한다.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와 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는 전 세계가 지구 온도 1.5°C를 초과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동시에 기후위기로 인한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특히 여성농민은 기후위기와 젠더 문제의 교차성으로 인해 다중의 억압과 차별 상황에 놓여 있다<sup>1</sup>. 기존의 농업 체계에 존재하는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제도, 규범으로 인해 여성농민은 기후위기에 대한 정보, 기술 접근성, 대응과 예방,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 등에서 성별 격차를 보이기 때문이다(Glemarec, 2017). 본 연구는 세계 농식품 체계와 가부장적 불평등 구조에 대항하는 자급경제(Mies and Bennholdt-Thomsen, 1999; Mies and Shiva, 2000)의 중요한 행위자로 위치해 온 여성농민이 아시아 지역 시민사회(CSO: Civil Society Organization) 농촌개발협력을 통해 현재의 기후위기와 생태적 재앙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생태적이고 시민적인 경험 세계를 새롭게 구축해 나가고 성평등과 생태시민성을 강화하는지에 대한 실천 과정을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 귀환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진행된 시민사회 농촌개발 협력 사업인 여성농민 공동체 임파워먼트 프로젝트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서 여성농민 공동체의 새로운 힘을 기르고 강화하는 구체적인 조건과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여성농민들은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생태를 중심으로 경험 세계를 재구축하는 가운데 새로운 생태적 힘(power)을 형성해 가고 있었다. 본 연구는 생태와의 새로운 관계성에 기반한 힘이 어떻게 현재의 급변하는 기후변화와 생태위기에 대응하는 여성농민의 시민적 실천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 지속가능발전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새로운 시민성 개념의 출현이 가능한지를 생태시민성과 젠더 논의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는 생태라는 요소가 어떻게 여성농민 개인과 공동체의 힘을 새롭게

<sup>1</sup> 여전히 개발도상국에서 여성은 농업 노동력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아프리카에서는 여성 소농의 비율이 약 60%에 이른다(UN Women, 2015). 그러나 여성농민들은 남성에 비해 땅, 신용, 금융, 농업, 정보 등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법, 정책, 사회, 정치, 문화 영역에서 제한적인 권리를 갖는다.

이끌어 내고 어떠한 조건 속에서 시민적 실천의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힘으로써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발전과 성평등 실현을 위한 생태시민성 개념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방향성과 생태시민성의 필요를 제안하고자 한다.

## II. 기존 연구 검토 및 이론적 논의

### 1. 인도네시아 여성농민의 역량강화 프로젝트

인도네시아의 여성농민에 관한 선행 연구는 자바(*Java*),<sup>2</sup> 칼리만탄(*Kalimantan*), 수마트라(*Sumatra*), 술라웨시(*Sulawesi*) 등 각 섬에 따라 농촌지역 여성의 지위와 역할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특히 인도네시아 농촌지역 여성들이 수하르토 정권의 국가 중심 농촌개발 과정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삶의 터전이자 자연자원인 땅, 숲, 광물 등을 둘러싼 투쟁을 전개해 왔는지에 대해 밝히고 있다(Saturi, 2015; Akter et al., 2017).

1970년대 이후 인도네시아 농촌지역 여성 연구는 자바섬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농촌사회의 관습(법)(*Adat*)을 둘러싼 여성의 지위와 역할 및 성별화된 노동에 대한 분석과 함께 농촌개발로 여성농민의 지위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다(Pyle, 1985; Heyzer, 1986; Azahari, 2008). 파일(Pyle, 1985)은 1970~1980년대 자바 농촌지역의 경우 관습(법)에 따라 결혼, 이혼, 상속, 재산권 등에서 여성의 권리가 기본적으로 남성과 같다고 이야기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여성들은 가정 내 조용한 가구주이거나 비공식적인 권력임을 밝히고 있다. 지금도 자바 지역 무슬림 여성은 실제 인도네시아 농촌개발의 과정에서 농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농업의 보조자로 다루어지거나 주요 행위자로 가시화되지 않음으로써 마을과 지역의 개발 과정에 참여하지 못할 뿐 아니라 남성 가구주에 비해 여전히 낮은 지위를 갖는다. 물론 다른 섬의 경우 부족에 따라서 관습적으로 여성과 남

<sup>2</sup>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의 표준어(*Bahasa Indonesia*)를 이탤릭체로 표기하고 있다.

성의 지위가 동등하거나 모체가 중심이 되는 지역도 있지만 농촌의 근대 개발 과정에서 여성은 구조적 불평등에 놓여 있었다(Azahari, 2008).

1990년대 이후 자바 농촌지역의 급속한 경제개발 속에서도 여성들은 여전히 농업의 주요 생산자 또는 가족 내 가구주로 간주되지 않았고 금융을 비롯한 경제적 자원을 이용하는데 제약이 많았다. 이에 여성농민에 대한 연구는 급격한 농촌개발과 국내외 이주노동으로 인한 여성농민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역할의 변화를 결혼, 가족 구성, 무슬림 종교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동시에 농민운동과 같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한 농촌개발과 여성 참여의 중요성을 드러내고자 했다(O'Shaughnessy, 2009; De Vos and Delabre, 2018). 특히 수하르토 정권의 몰락 이후 서구와의 초국적 연대 속에서 시민사회는 여성, 농민, 환경 등 단체를 설립하고 적극적으로 시민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여성농민들은 전국 단위의 여성농민 독자 조직은 설립하지 못했지만, 인도네시아농민연맹(SPI: *Serikat Petani Indonesia*)과 같은 전국단위의 농민 조직 내 여성위원회 설립을 통해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고자 노력해 왔다. 농촌개발에 대한 여성의 참여는 1990년대 말 수하르토 정권 이후부터 정책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고 여성농민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역량강화사업도 본격적으로 다루어졌다.

농촌 지역 여성농민의 역량강화를 목표로 하는 농촌발전 프로젝트인 꼬짜마탄(Kecamatan) 개발사업의 경우 전국의 읍, 면 단위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한 개발 프로젝트로 1998년에서 2008년까지 약 160억 달러 규모로 운영되었다.<sup>3</sup> 꼬짜마탄 개발사업은 농촌 지역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제시했는데, 특히 여성의 정치적 참여와 경제적 역량강화, 사회문화적 참여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여성의 참여는 적었고 개발 성과 또한 미미했다(김은경 외, 2012).<sup>4</sup> 이는 역량강화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

<sup>3</sup> 인도네시아 내무부의 지역사회개발팀(Community Development Office)의 주도하에 세계은행 및 독일 GTZ(Deutsche Gesellschaft für Technische Zusammenarbeit), 일본 JICA(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영국 DFID(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의 지원과 협력하에 운영되었다.

<sup>4</sup> 김은경 외(2012: 236)의 분석에 따르면 개발사업의 젠더 전략은 국제기구의 표준화된 젠더 기준에 맞춰 여성의 사회 참여를 당위적 개발 목표로만 설정하였기에 실제 여성 참여를 이끌어 낼 지역 여성의 이해 및 현지의 요구에 맞추지 못했다. 이로 인해 여성들이 참여할 이유나 필요성이 부족했

는 인식의 과정이자 주체의 변화 과정(Rowlands, 1997: 14)이라면 이러한 과정을 가로막는 차별적 의사결정 과정 또는 참여와 접근성의 제한과 같은 구조적 불평등이 작동함을 뜻한다. 이러한 문제는 짜안주르 지역에서 2000년대 이후 전개되어 온 농지개혁운동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농지개혁운동에 참여했던 여성농민들이 실제 농지 반환 과정에서 남성 가구주와 생계부양자 중심의 소유권 분배로 인해 배제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여성농민의 역량강화 프로젝트가 개발 속 여성(WID: Women In Development) 접근을 통해 여성농민이 처한 구조적 불평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데 기인한다.

2015년 이후 지속가능발전(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담론은 지속가능한 생태와 환경, 성평등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조적 방해물을 해결하는 전환적(transformative) 접근(UN Women 2013: 2)으로 SDGs의 성평등 목표 달성을 위한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를 제안해 왔다. 특히 성차별, 기아, 빈곤, 식량 문제와 같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불평등을 다루기 위한 지역화(localization) 전략이 함께 이행되었다. 실제로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인도네시아의 농촌개발 협력을 살펴보면 여성농민의 역량강화와 성평등, 환경 및 생물다양성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프로젝트들이 진행되어 왔다. 한국 정부 또한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주의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새마을운동 ODA사업을 수행하면서 농촌여성의 조직화와 경제적 역량강화를 목표로 사업을 실행해 왔다. 이러한 사업들은 기후 변화와 세계 먹거리 및 경제위기로 인한 여성소농의 자본, 건강 및 교육과 같은 접근성의 문제를 제기하며 여성소농의 역량강화가 개인과 가족, 농촌공동체뿐만 아니라 농업노동의 여성 참여라는 경제적 기여의 측면에도 중요함(FAO, 2011)을 강조한다. 특히 농업의 가치사슬 확장은 개도국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역량강화에 중요한 모델(김동환 외, 2017)로 다루어져 왔고 인도네시아처럼 소농의 자급적 농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업환경에서 농업의 가치사슬 확장은 여성농민의 농업 생산과 유통, 가공에 있어 조직화를 통해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고 결과적으로 자발적 참여는 낮을 수밖에 없었다. 다시 말하자면 여성 스스로가 왜 힘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동기 부여와 의식화를 이루지 못함으로써 공동체 조직을 통한 세력화를 이끌어 내지 못한 것이다.

실질적인 경제적 역량을 높이는 데 중요한 전략으로 제시되고 있다(FAO, 2017).

그러나 현재 인도네시아 여성농민 대상 역량강화 프로젝트들은 사업 참여의 동기를 이끌어내지 못하거나 개인의 참여가 의식화와 조직화로 연결되지 못하고 또 기존의 성별 규범이나 문화적 관습, 권력관계로 만들어지는 구조적 불평등에 대항하기 위한 세력화와 시민권의 실천과 확장을 다루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역량강화 프로젝트들은 지속가능한 환경이란 목표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 여성농민이 일상과 노동을 영위하는 땅과 숲이라는 자연환경과 자원의 문제를 도외시하고 있다. 여성농민의 역량강화를 측정하는 사업 지표가 환경적인 요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 그 증거다.

농업 부문의 여성 역량강화를 측정하는 공식적인 지표(The Women's Empowerment in Agriculture Index)는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생산에 대한 의사결정, 생산자원에 대한 접근, 소득의 사용 권리, 마을 리더십, 시간 사용으로 여성의 역량 변화를 정량화하고 있다(IFPRI, 2012). 그러나 여성농민의 역량강화 지표는 생산의 토대가 되는 땅과 숲, 그리고 생산자원으로 이야기되는 종자와 작물 등을 농업의 수단이나 도구, 권리로만 취급함으로써 여성농민들이 처해 있는 생태환경의 조건이 개인의 역량 문제로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를테면 여성농민의 농사짓는 땅이 과거 플랜테이션 농지인지 아니면 숲을 개간한 곳인지와 같은 땅의 역사와 흙의 상태를 알 수 없거니와 여성농민들이 전통적이고 토착적인 지식을 통해 이어 온 종자나 농사 기술과 같은 생태지식 역시 측정되지 않는다. 지역의 생태위기나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 역시 여성농민의 역량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안이지만 이는 전혀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 현재의 기후변화와 생태위기 속에서 여성농민의 일상적 토대가 고려된 새로운 힘 갖추기를 기획하기 위해선 자원, 도구, 수단으로 다루어져 온 생태에 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즉 생태적 행위성을 발전 프로젝트의 과정에서 하나의 조건으로 배치하고 여성농민과 생태가 어떻게 상호적인 힘 갖추기를 통해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밝혀야 할 것이다.

## 2. 생태시민성과 젠더

시민성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시민의 변화하는 가치와 규범, 권리와 행동 양식에 의해 발현되는 시민다움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어 왔다(조형, 2007). 무페(Mouffe, 1992: 225)는 시민성을 어떻게 정의하가가 어떠한 사회를 원하고 어떠한 정치적 공동체를 지향하는가와 연결된다고 설명한다. 여성주의 연구는 기존에 시민성 개념이 가부장제와 공사 이분법으로 인해 남성 중심적이거나 성별 중립적인 개념으로 다루어져 왔음을 비판(Voet, 1998: 21)한다. 게다가 시민성 개념이 국민 국가의 영역에서만 협소한 권리로 다루어졌던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회적·문화적·초국적 시민성 개념으로 확장하고 전환할 것을 주장해 왔다.

시민권은 시민성의 발현이자 공적인 권리로써 시민성의 논의와 구별된다. 리스티(Lister, 1998)는 자본주의 세계화라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시민권을 자유주의에 근거한 공적 영역의 제한된 권리로만 해석하고 사적 영역에서는 배제한 문제를 비판해 왔다. 공적 영역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권 논의가 여성의 재생산 노동과 돌봄에 관한 권리를 시민의 공적인 권리가 아닌 개인의 문제로 축소해 온 것이다. 즉 여성주의에서 시민권은 사적인 영역에서 자연화되어 온 여성의 활동을 정치화하기 위한 행위성과 다양성에 바탕한 민주주의적 실천인 것이다. .

가드(Gaard, 2017)는 비판적 에코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인간 중심의 여성주의 시민권은 다종 간 윤리로 통합되어 다시 쓰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간과 인간 너머의 세계(more than human) 간 새로운 윤리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가드(Gaard, 2017)는 자연에 대한 차별의 억압적 구조가 종 차별주의와 연결되기 때문에 인간도 동물이자 자연과 문화 모두에 속하는 존재로 새롭게 정의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지구적 생태 문제는 인간의 소유권이나 환경권과 같은 권리의 문제만이 아닌 인간과 비인간과의 관계가 포함되어 있는 문제이며 무엇보다도 이러한 법 제도의 변화나 개정만으로 현재의 생태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한다.

생태시민성(ecological citizenship)은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환경 인식이자 권리에 대한 논의다. 이러한 생태시민성 논의는 기술보다는 가치에 초점을 맞춘 발전으로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새로운 접근으로 다루어



지고 있다. IPCC(2014)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된 바가 있다.

산업화 이전 대비 기온 상승을 2°C 이하로 안정화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기존의 산업과 다른 긴급하고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가 행동을 취하는 데 오래 걸릴수록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이며 기술적·경제적·사회적·제도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또한 더 많은 비용과 더 큰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IPCC, 2014: 5).

1990년대 이후부터 생태시민성(ecological citizenship), 녹색시민성(green citizenship), 환경시민성(environmental citizenship), 지속가능시민성(sustainability citizenship) 등의 대안적인 시민성 개념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는데, 이 중에서 생태시민성은 기존의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에 기반한 시민성 논의가 지구적 환경문제를 다루는 데 적합하지 않음을 비판하였다(Dobson, 2003). 돕슨(Dobson, 2003)은 지구적 생태문제가 개인 소유 자산의 피해차원으로서 환경문제 또는 인간 중심 법체계 내에서 환경권과 같은 문제로 축소되어 왔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현재의 지구적 생태문제는 인간의 소유권이나 환경권과 같은 권리의 문제만이 아닌 인간과 비인간과의 관계가 포함되어 있는 문제이며 무엇보다도 이러한 법 제도의 변화나 개정만으로 현재의 생태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돕슨(Dobson, 2003)은 환경적 시민성(environmental citizenship)과 대조되는 생태시민성이란 개념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시민성을 현세대 인간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와 비인간 생명체에게도 확장할 것을 제안했다<sup>5</sup>. 여기서 생태란 생물의 분포와 다양성, 유기체를 포함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환경에서 유기체 간의 관계와 상호 작용을 의미한다(Sharma, 2012). 돕슨이 주장하는 생태시민성의 특성은 첫째, 복잡성과 호혜성의 세계에서 비계약적 의무와 책임을 포괄하고, 둘째,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모두에서 비영토적이고 비차별적인 관계성에 기반하며 셋째, 정의, 배려, 동정과 같은 시민적 덕성이 요구된다.

<sup>5</sup> 이러한 생태시민성 논의는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을 넘어서 시민 주체들이 비인간 생명체와의 관계성을 포괄하는 확장된 인식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생태적이면서도 민주적인 사회가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규범적 토대를 제공한다(박순열, 2010).



그러나 돕슨의 생태시민성 논의는 인간이 아닌 인간 너머의 세계에서 과연 시민 주체란 누구이며 누구를 어떻게 호명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제기한다. 이와 더불어 돕슨이 제안하는 생태시민성은 어떻게 시민성의 가치와 규범, 실천과 권리를 설명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생태시민성이 형성되고 실천되는 데 있어서 사회의 구조적 성 불평등 문제는 어떻게 다를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충분치 않다. 이로 인해 생태시민성의 실천 과정에서 성 불평등을 재생산할 수 있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실제로 많은 환경문제를 발생시킨 기존의 젠더 중립적인 시민성 논의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 없이 생태에 대한 윤리와 책임을 다루는 생태시민성은 여성을 여전히 자연과 생명을 보살피는 존재로만 간주하거나 성 불평등의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맥그레고(Macgregor, 2006)는 여성주의 생태시민성 논의를 통해서 여성에게 부착되어 자연화되어 온 인간과 비인간 생명체에 대한 돌봄을 비롯한 사회적 재생산의 문제를 생태시민성 개념을 통해 공적 영역에서 정치화할 것을 주장한다. 맥그레고(Macgregor, 2006: 215-216)는 기존의 생태시민성 개념에 여성주의적 인식론이 부재하는 한편 생태여성주의 담론은 과도하게 여성의 경험에 의존하는 문제의 대안으로 여성주의 생태시민성 개념을 제안한다. 비록 여성들이 환경 및 생태적 실천과 운동에 있어 보살핌과 개입 사이에서 의미 있는 연결을 만들어왔으나 환경운동의 행위자로서 여성에 관한 말하기에는 모성주의에 의존하지 않는 전략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들의 생태적 실천을 단순히 주부의 일, 보살피는 모성으로 실천하는 환경 보호 행위가 아니라 생태적 책임과 권리의 시민적 실천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여성농민의 생태시민적 실천 사례로서 김효정(2023)의 연구는 기후위기 시대 한국 사회 여성농민운동이 어떻게 유기농, 로컬푸드, 농생태학과 같은 대안농업운동으로 생태적 전환을 시도하는 가운데 흙, 땅, 종자, 작물 등 다중 간 관계성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생태 정치를 전개하는지 밝힘으로써 여성농민운동이 대안농업을 통해 어떠한 다중 간 얽힘과 엮임의 과정에서 여성농민과 공동체의 생태적 경험 세계를 새롭게 구축해 나가는지를 규명하고 있다.

### I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일본 시민사회의 지원을 통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된 인도네시아 시민사회의 농촌발전 프로젝트로서 인도네시아 서자바 짜안주르<sup>6</sup> 지역 여성농민 공동체의 임파워먼트 사업에 대한 여성주의 사례연구 결과이다. 사례연구를 위해 현장 참여관찰과 함께 시민사회 개발협력 사업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인 개발협력 사업 담당자들 및 여성농민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생태에 기반한 여성농민의 대안농업 실천, 여성농민 단체의 조직, 대안농업운동 실천, 지역사회의 변화 등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분석했다.

본 연구를 심층면접과 참여관찰을 통한 사례연구로 설계한 이유는 여성주의 연구에서 사례연구가 한 현상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시도할 수 있고, 특히 여성의 경험, 지식, 관점을 기록할 수 있으며 사회적 현상의 복잡성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도구로 활용(Wambui, 2013: 6)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연구 과정에서 사례를 분석할 때는 사례가 위치한 맥락과 상황에 따라 분석의 범주와 내용, 구성이 달라진다. 따라서 사례 연구에 있어서 사례가 갖는 맥락성과 상황적 지식에 대한 이해가 함께 규명되어야 한다.

인도네시아 농촌개발단체 Z의 활동가들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일본 시민사회 지원을 받아서 짜안주르 지역 6개의 마을을 중심으로 자연농 공동체 사업을 통한 소농여성단체의 임파워먼트(empowerment of peasant women organizations through collective business of natural farming)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본 사업의 목표는 여성농민의 생태적 지식과 지역 문화에 기반한 자연농법 교육 및 성평등한

<sup>6</sup> 짜안주르(Cianjur) 군(Kabupaten)은 인도네시아의 38개 주(Provinsi)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자와바랏(Jawabar) 중 하나의 지역으로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에서 약 120km가량 떨어져 있으며 면적은 약 3,840km<sup>2</sup>, 인구는 인도네시아 통계청 기준 2004년 약 200만 5,000명에서 2020년 약 247만 명으로 매년 증가해 왔다(Cianjur Regency Statistical Bureau, 2020). 짜안주르군은 32개의 읍, 면(Kecamatan)과 354개의 리(Desa)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짜안주르군의 주요 경제 활동 영역을 살펴보면 2004년에서 2019년까지 농업 부문이 계속해서 지배적임에도 불구하고 1인당 평균 소득이 2004년에 1인당 국민총생산(GDP)의 50%를 넘었으나 2019년에는 30% 이하로 감소했다(Jatayu et al., 2020: 3). 짜안주르 지역의 민족 구성은 주로 순다(Sunda)족으로 이루어져 있고 순다어를 사용하며 종교는 무슬림이 대부분이다(법무부, 2018).

표 1 S 소속 연구참여자의 특성

	이름	지역(Desa)	연령대	농사방식	특성	이주노동
1	아미라	보종까시	30대	유기농	보종까시 대표	없음
2	파히자	왈가아시	70대	유기농	S 회장	국내
3	히나타	왈가아시	50대	혼합	이혼 1번, 재혼	해외
4	이나야	왈가아시	40대	관행농	이혼 1번, 재혼	해외
5	조이스	왈가아시	20대	관행농	신규 회원	없음
6	리사	간다사리	30대	농사 중단	전 S 회장	없음
7	마리암	간다사리	40대	유기농	간다사리 대표	국내
8	나디마	간다사리	30대	유기농		국내
9	라얀	왈가사리	40대	유기농	왈가사리 대표	없음
10	무니라	네글라사리	30대	유기농	네글라사리 대표	국내
11	히바	수카라자	50대	관행농		해외
12	아티파	팔라가사리	50대	유기농	팔라가사리 대표	없음
13	아윗	왈가아시	30대	유기농	남성(자문)	국내

공동체 역량강화다. 이 사업을 통해 2015년 짜안주르 지역을 중심으로 여성농민 생산자 조직 S가 설립되었다. 단체이름은 순다어로 ‘하나의 말로 여성농민 일어서기(one word women peasant’s rise up)’란 의미를 갖고 있다. 2018년 당시 S는 짜안주르 까두뻬딱의 14개 리(Desa) 중 11개 리에서 구성된 분회이자 모임을 뜻하는 11개의 빠구유반(Paguyuban) 약 170명의 여성농민 회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여성농민은 국내외 이주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대개 귀환하여 마을에 재정착하는 과정에서 농업을 배우기 위해 S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2021년에는 지원사업 종료, 코로나19, 이주노동 등의 영향으로 회원 수가 감소하여 약 80명의 여성농민이 참여하고 있다. 연구자는 2018년 5월 한 달간 짜안주르 지역에 머물면서 여성농민단체 S 소속 여성농민 회원들을 중심으로 이들의 활동과 농사, 일상을 참여관찰하고 심층면접을 진행했다. 2019년 사업 종료 이후의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2020년 현지연구를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인도네시아 방문이 불가능해지면서 2021년 4월에 인터넷 전화인 왓츠앱과 화상회의 줌을 통해 후속 심층면접을 진행했다. 표 1은 심층면접에 참

표 2 Z 소속 연구참여자의 특성

번호	이름	나이	성별	근속기간	업무
1	야야	50대	여	18년	Z 대표
2	아민	40대	남	9년	Z 활동가 S 사업 담당자
3	자말	30대	남	10년	

여한 S 소속 연구참여자의 특성이다.

다음으로 짜안주르 지역 여성농민의 대안농업 실천과 조직화를 지원해 온 시민사회단체 Z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했다. 단체 Z는 S의 여성농민들이 조직 운영과 대안농업 실천 과정에서 경험하는 구조적 한계를 설정해 주는 중요한 단체이자 매개자다. 연구자는 Z 활동가를 대상으로 2018년 5월에 대면 심층면접 2회, 2021년 4월에 영상회의를 통한 비대면 심층면접 1회 총 3회에 걸쳐서 활동 내용, 농촌개발의 의미, 시민단체의 역할, 대안농업의 내용과 지원 방법 및 여성농민의 지위와 권리 등에 대해 심층면접을 진행했다. 표 2는 심층면접에 참여한 Z 소속 연구참여자의 특성이다.

## IV. 시민사회 개발협력을 통한 짜안주르 지역 여성농민운동의 조직화

### 1. 인도네시아 서자바 여성농민 문제의 특수성과 역량강화 프로젝트

단체 Z는 짜안주르 지역에서 2015년부터 여성농민 스스로가 조직을 결성하고 플랜테이션으로 척박해진 땅을 되살리기 위한 자연농법과 유기농법 같은 대안농업 실천을 통해 가족의 먹거리와 건강 및 경제적 역량강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단체 Z가 여성농민 지원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과거 Z가 수행한 농지개혁 사업에서 여성들이 배제되는 성차별 문제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Z의 활동가들은 2002년에서 2004년 독일 시민사회 개발협력을 통해 짜안주르 지역의 농민단체인 PPC(Paguyuban

*Petani Cianjur*의 농지개혁(agrarian reform) 운동을 지원했고, 결과적으로 농지개혁 운동에 성공하면서 짜안주르 까두빤딱의 플랜테이션 농지 약 2,000헥타르 중에서 약 900헥타르의 땅을 반환받았다. 2,000헥타르의 플랜테이션 농지는 과거 네덜란드, 일본과 같은 식민 국가의 소유였고 독립 이후 1980년대에는 씨아스타나(*Ciastana*)라는 농기업의 소유로 고무 플랜테이션 농장이었다가 1990년대에는 코멕신도(*Comexindo*)라는 농기업에 의해 옥수수 플랜테이션 농장으로 운영된 이후 현재는 짜안주르 지방 정부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다. 당시 지역의 여성 농민들은 협상과 시위에 적극적으로 활동했고 투쟁의 선봉에 서 있었으나 실제 농지가 농민들에게 반환되는 과정에서는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남성과 동등한 지위를 갖지 못했다. 게다가 농지를 반환받은 까두빤딱 지역의 농민들은 대개 플랜테이션 농지의 토질이 좋지 않아 농사에 실패하거나 포기하면서 결국 대부분이 농지를 팔아버리고 말았다.

이러한 실패의 경험을 토대로 Z의 활동가들은 까두빤딱 지역 여성농민들을 위한 성평등한 지원이 필요하고 특히 농지 소유를 넘어서 농지를 통해 실제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땅을 살리고 생산량을 높일 수 있는 대안농업 교육과 여성농민 조직화를 위한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Z의 활동가들은 일본의 개발협력 시민단체이자 개발도상국 시민사회의 성장 자립을 지원하는 ACT(Asia Community Trust)로부터 원조기금을 지원받아 여성소농 임파워먼트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었다. 사업의 목표는 여성농민의 생태적 지식과 지역 문화에 기반한 자연농법 교육 및 성평등한 공동체 역량강화다. 이 사업을 통해 2015년 짜안주르 까두빤딱 지역을 중심으로 여성농민 생산자 조직 S가 설립되었다. S의 여성농민 회원들은 Z의 지원으로 2015년 단체를 조직한 이후 Z에서 제공한 자연농법 교육, 젠더트레이닝 등의 활동을 비롯해 마을 단위의 대안농업 공동경작, 식품 가공, 아리산(*Arisan*)<sup>7</sup>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S 여성농민 회원들은 대안농업 실천을 통해 종자, 땅, 물과 같은 생태와의 관계를 새롭게 재구성하고 공동경작을 통해 공유재의 순환과 돌봄을 확장하는 가운데 마을과 지역에서 새

<sup>7</sup> 한국의 계와 같은 친목 형태의 비공식 경제활동으로 화폐를 비롯한 쌀, 코코넛 등의 농산물을 공동으로 모으고 사용한다.

롭게 대두되는 정부의 숲 벌목, 식수 부족 등 생태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한편 2010년대에 들어서 인도네시아 농촌개발은 도시와의 빈부격차, 자연자원의 착취,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농촌개발을 국가발전정책의 우선 순위로 두기 위해 2014년 마을에 관한 법(Law on Village)을 제정하였고 탈집중화, 지역의 자립경제, 농업농촌개발이라는 지역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농촌 개발의 지역화 과정에는 다양한 국제개발협력 기관 및 행위자들이 관여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정부는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업을 통해 탈도시화, 마을 자치성, 시민 참여를 이루어 내고 SDGs 달성을 위한 책무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Phahlevy, 2016; Salim et al., 2017). 그러나 실제 이행 결과는 농촌지역의 성 불평등과 빈곤 및 생태 위기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Saturi, 2015). 이러한 문제는 짜안주르 지역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단체 Z에서 여성농민조직 S 사업 담당자인 아민은 짜안주르 지역에서 여성 중심 사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민: 초기 평가를 통해 짜안주르 지역의 마을들에 가부장제 문화가 강하다는 문제와 함께 플랜테이션 문제가 있었고 토지 개혁 문제도 있었어요. 특히 여성들의 불운한 삶이 있었는데 많은 여성들이 국내외로 이주노동을 가야 했어요. 여성들의 삶이 주변화 되어 있었지요. 여성들은 이주노동을 하고 돌아온 이후에도 경제적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왜냐면 여성들은 이주노동을 하면서 가족들을 위해 돈을 모두 송금했지만 그사이 남편이나 가족들은 그 돈을 다 써버린 거죠.

Z 단체 활동가 아민은 여성농민 조직화 사업의 배경이 짜안주르 지역의 뿌리 깊은 가부장적 문화로 인해 여성들이 사회적·경제적·정치적으로 지위가 낮고 복합적인 차별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아민은 Z 단체 내에서 짜안주르 지역 여성들의 국내뿐만 아니라 높은 해외이주노동 비율에도 불구하고 귀환 이후 여성들의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소외되고 배제되는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고 했다. 이에 여성을 둘러싼 다층적 차별의 구조적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권의 획득을 위한 여성의 의식화와 조직화라는 새로운 여성 역량강화 프로젝트를 시도하게 된 것이다.

찌안주르 지역은 1980년대와 90년대 해외이주노동자 특히 여성 가사노동자를 중동으로 송출하는 전략적 기지였다(Raharto, 2002; Novirianti, 2010). 인도네시아 수도인 자카르타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특성과 함께 수하르토 정부의 해외이주(transmigration) 정책으로 인해 농촌지역 여성들의 해외이주노동이 적극적으로 장려되었다. 찌안주르 지역은 인도네시아 전체에서 세 번째로 해외이주노동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특히 여성의 이주 비율이 높는데, 대부분 사우디아라비아나 중동 지역의 가사노동자로 이주한다. 여성들은 보통 3년에서 7년 정도 이주노동을 하고 귀환하는데, 해외이주노동 이후 귀환과 재정착 과정에서 농사를 비롯한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히나타: 1985년 19살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마디나 지역과 리아트 지역에서 일을 했어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해외이주노동을 떠났어요. 나는 남편이 있었지만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가장이었고 두 아이들을 키워야 했어요. 아이들을 부모님께 맡기고 사우디로 떠났어요.

히바: 1993년에 처음 사우디로 이주노동을 갔어요. 결혼하고 남편이 사는 마을로 갔는데 시부모님과 문제가 있어서 사우디를 가기로 결정했어요. 내가 돈을 번 덕분에 집을 살 수 있었어요. 집주인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메카에 순례도 갈 수 있었어요. 1994년에 마을로 돌아와서 집을 사고 땅을 샀어요. 남편은 아파서 일을 할 수가 없어서 내가 돈을 벌고 아이와 생활해야 해요.

왈가아시(Warga Asbi)의 히나타와 이나야, 수카라자(Sukaraja)의 히바는 모두 해외이주노동에서 귀환 이후 자신의 명의로 집과 땅을 구매했지만 S 활동을 시작하기 전까지 농사짓는 법을 잘 몰랐다. 이들은 S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농사법을 배울 수 있었다. 결국 농민이 된다는 것은 토지 소유권의 문제만이 아니라 땅을 어떻게 일구어 나갈 것인가 하는 땅과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 특히 국내외 귀환이주여성들은 자신의 마을에 재정착하기 위한 S의 대안 농업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있었다.



## 2. 인도네시아 여성농민 조직 S의 결성과 대안농업의 실천

단체 Z는 짜안주르의 까두빘딱 지역을 중심으로 여성농민조직 결성을 위한 조직화, 대안농업 실천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해 왔고 여성농민조직 S가 결성되었다. 당시 S의 여성들은 다양한 연령과 생애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대안농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고 S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11개 리 단위 회원들은 분회이자 모임인 빠구유반을 운영하는데 각 빠구유반마다 대표를 따로 정해 일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각각의 빠구유반은 쿠란(Quran)을 읽는 종교모임(Pengajian), 빠구유반을 운영하기 위한 주간 회의, 공동경작을 위한 농사모임 등 다양한 모임과 일을 통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S의 대표 파히자와 네글라사리(Neglasari) 빠구유반 대표 무니라는 S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파히자: S는 2015년 11월 13일 창립했습니다. S는 마을여성농민의 공동체 운동입니다. 11개의 리에서 빠구유반이 활동하고 있어요. 우리의 공식 설립 문서에 따르면 S의 목표는 첫째, 여성농민이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것. 둘째, 여성농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일 것. 셋째, 자연농법으로의 전환. 넷째, 마을의 잠재력 높이기입니다. S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자연농법이고, 이를 통해 우리 가족이 건강한 음식을 먹고 영양 상태를 좋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식량주권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식량주권이란 당신이 고추를 샀다면 이제는 직접 길러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 사실 처음엔 Z의 교육에 의심이 있었어요. 왜 이런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조직화가 될 수 있을지 전혀 기대감이 없었어요.

무니라: 비록 중학교를 못 갔지만 정말 교육을 받고 싶고 많은 정보를 얻고 싶은 욕구가 많았는데 Z의 활동가를 알게 되었어요. 빠구유반에 활동하고 싶어서 기도를 드렸어요. 처음에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말도 잘 못하고 사람을 쳐다보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사람들과 이야기도 잘하고 자신감도 많이 생겼어요. (...) 빠구유반 활동을 하면서 자연농법이나 다양한 지식을 배울 수 있게 되었어요. 고등학교나 대학을 가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지만, 이런 비공식 교육은 돈이 들지 않고 강한 의지만 있으면 되기 때문이에요.

파히자가 언급한 대로 S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비공식 교육이다. S의 여성농민들은 대안농업을 비롯한 젠더, 리더십, 경제 등의 다양한 비공식 교육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나누고 의식화 과정을 경험할 수 있었다. S의 여성들은 가정에서 아이들의 어머니이자 남편의 부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S의 회원이자 여성농민으로서 또 빠구유반의 리더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 나갔다. 이러한 교육을 비롯한 S 활동 전반의 운영을 위해서 여성들은 공동체를 중심으로 비자본주의적 방식의 경제활동을 만들어 가고 있었다. 여성들은 아리산을 통해 화폐가 아닌 쌀을 하나의 자원으로 매개하고 있었다.

찌안주르를 비롯한 인도네시아 농촌의 많은 지역은 여전히 도로, 전기를 비롯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여성농민들은 일상적으로 쌀, 카사바, 코코넛, 설탕과 같은 생태적인 비화폐로 통하는 계의 일종인 아리산을 주요 생계경제 양식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S의 회원인 나디마와 이나야가 아리산과 단체의 경제적 운영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나디마: 쌀 1kg당 1만 루피아를 받아요. 공동 경작하여 받은 30kg을 판매했고 30만 루피아를 여성농민회 활동으로 사용해요. 아리산 비용으로도 사용해요. 돈이 필요한 회원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모든 회원들은 1년에 두 번, 쌀을 수확할 때마다 쌀을 5kg씩 총 10kg 내요. 이것을 모아서 활동비로 사용해요.

이나야: 매월 빠구유반 월례 회의에서 매번 1만 루피아와 한 컵의 쌀을 모으고 있어요. 아리산을 통해 계속 모으고 있고 돈이 필요할 때에는 빠구유반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어요. 이자는 한 달에 1%예요.

나디마와 이나야의 설명처럼 S의 경우 찌안주르 지역의 주요 생산물인 쌀을 매개로 아리산을 운영하고 있었고 여성농민들은 주로 자신이 직접 생산한 유기농 쌀을 통해 S 활동을 실천해 가고 있었다. 이는 경제 개념에 있어서 지역적 맥락을 고려할 때 자본 중심의 접근만이 아니라 비자본주의적이고 생태적인 경제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함을 반증하고 있다.

여성농민들은 S 활동을 통해서 생태와 새로운 관계성을 맺어 가고 있었다. 생

태와의 새로운 관계성을 맺는 과정은 실질적인 대안농업 노동을 통한 땅, 작물, 쌀과 같은 물질의 변화를 체현하고 이러한 물질의 변화를 더욱 옹호함으로써 재구성되고 있었다. 다시 말하자면 여성 주체의 변화 과정은 생태의 변화라는 물질성과 이러한 물질성을 가능하게 하는 시간성을 통해서 구축되고 있었다. 왈가사리(Walgasari) 빠구유반 리더인 40대 라얀은 S 활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유기농으로 전환한 이후 대안농업을 실천하고 있다.

라얀: 저희 마을은 지하수가 잘 나올 때도 있고 아예 없을 때도 있어요. 관행농을 지을 때는 물이 없으면 땅이 완전히 말라 버려요. (...) 자연농법으로 전환하고 나서 물이 없어도 눈에 겹흙은 마르지만 흙 안쪽으로 손을 넣어보면 여전히 촉촉해요. 다른 이웃들도 왜 우리 집 논은 마르지 않고 물이 충분하냐고 비가 왜 이렇게 건강하냐고 물어요...전에 화학비료를 사용할 때는 손이 간지럽고 아팠는데, 천연비료는 제 손을 아프게 하지 않아요. (...) 제가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라얀은 자신이 직접 살과 맞는 흙의 변화를 체현하고 이를 생태 지식으로 체득하며 역량을 강화해 갈 수 있었다. 라얀은 대안농업 실천을 통해 자신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자신의 작물도 생태적인 농사 방식을 통해 건강에도 강하고 병충해에도 잘 버티는 것을 보면서 연대 의식을 느끼기도 했다. 이러한 라얀의 연대 의식이란 감정 역시 생태의 행위성을 인식함에 따라 발현되는 정동(affect)으로 볼 수 있다.

찌안주르 지역은 1년에 두 번의 이모작과 풍부한 농업용수 덕분에 서자바 지역에서 찰기 있는 쌀 생산으로 유명한데 S의 여성농민들은 대안농업을 통해 논이라는 땅과 쌀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아티파는 대안농업을 실천하면서 땅이 비옥해지고 쌀의 성장이 좋아졌으며 생산량도 눈에 띄게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쌀 맛이 좋아졌다고 설명했다.

아티파: 제 스스로 농사를 지어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심어요. 땅콩, 고구마, 카사바, 카다멈 (...) 씨앗은 다 직접 채종하고요. 퇴비도 직접 만들어요. (...) 작년에 정부에서 씨앗을 준다고 했는데 저희는 받지 않고 직접 채종을 해요. (...) 농사를 지으면 행복하고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기뻐요.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 지금은 유기농 쌀이 훨씬 맛이 좋고 밖에 나가서 농약으로 지은 쌀을 먹으면 맛이 전혀 없어요. 나는 내가 생산한 쌀을 먹는 것이 맛있어요. 흠은 과거에 매우 건조했지만 지금은 비옥해요.

아티파의 경우 2015년 처음 대안농업 교육을 통해 천연 퇴비와 해충제 만드는 방법을 배운 이후로 대안농법을 계속 적용해 나가면서 2020년부터는 모든 농사에서 화학 자재를 전면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아티파는 대안농업으로 전환한 이후 땅이 좋아지면서 천연퇴비의 투입량도 줄어들었고 작물이 건강해지다 보니 천연 해충제도 덜 쓰게 되면서 농사일 자체가 줄었다고 이야기했다. 이렇듯 S의 여성들은 쌀이라는 작물의 요구에 맞추고 적극적으로 부응하면서 작물의 행위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자신의 행위성을 맞추는 과정에서 생태를 하나의 공동 생산자로서 위치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생태 지식을 구축해 나가고 있었다. 이러한 여성농민들의 생태지식은 대안적인 자원이면서 역량으로 경제적 임파워먼트와도 연결되고 있었다.

## V. 생태위기와 여성농민의 생태시민성 실천

### 1. 숲 파괴와 여성농민의 대표성 확장

최근 짜안주르 지역의 산림이 인도네시아 국가 개발, 특히 토건 개발에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되면서 주민들의 동의 없이 벌목과 숲 파괴의 문제가 발생하는 가운데 이로 인한 물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짜안주르 지역 특히 남부 지방은 산악지대로 숲이 많은데, 숲은 물을 가두어 두는 식수원이자 나무 빨강, 먹거리 등을 제공하는 자원으로 주민들의 생존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도맡아왔다. 짜안주르 지역의 주요 수종인 라사말라(*Rasamala*) 나무는 집을 짓는 용도로 품질이 좋은 나무이면서도 뿌리에 물을 많이 가둘 수 있어 주요한 식수원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세계 경제체제 내에서 산림이라는 원자재 생산기지이자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토건 개발의 확대에 의해 짜안주르 지역의

숲이 벌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도네시아의 산림 자원을 관장하고 있는 중앙 정부의 국영영림공사(Perhutani)와 지역의 산림자원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군(Kabupaten) 정부는 자원 개발과 지방 정부의 세금 확충이라는 명목으로 주민들과의 거버넌스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숲을 무단으로 벌채하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현재 짜안주르군 정부 역시 라사말라 나무를 얻기 위한 토지 이용을 허가함에 따라 마을 곳곳의 벌목으로 인한 물 부족 문제를 초래하고 있었다.

S의 회원들이 관습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마을의 숲은 공유지이지만 대부분 짜안주르군 정부의 소유이자 권한 아래 놓여 있다. 토지의 소유권과 이용권이 지방 정부의 소관이기 때문에 숲 벌채가 강행되어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S의 대표인 파히자는 수카사리(Sukasari) 마을에 위치한 지역 대표 원시림인 바후라랑(Babu Rarang)산 역시 숲 벌채로 인해 물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S의 회원이자 자문인 아윗 역시 물 부족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파히자: 바후라랑산의 물은 시아스타나 폭포를 비롯해서 가장 큰 원시림인데 여기 도 벌목이 되고 있어요. 자연농법으로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물이 제일 큰 문제예요.

아윗: 현재 간다사리와 수카사리 마을에는 국영영림공사에 의한 불법 벌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면장과 이장들은 식수원이 있는 반경 200m 내로는 벌채를 하지 않겠다고 협약을 했지만, 현재 국영영림공사는 숲을 다 잘라버렸고 10개 마을이 식수난과 물 부족을 겪고 있어요. 석 달 전에 불법 벌채가 자행되었고 계곡과 식수원이 사라졌어요. 10개 마을의 식수원이 사라져서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번 벌채도 아무런 협의나 논의 없이 그냥 진행되었어요. (...) 여기만이 아니라 바투산(Gungung Batu) 전체가 다 벌채될 예정이에요. 면사무소와 국영영림공사의 비밀 협약이 문제예요. 면장에게 공개 질의를 했지만 아무런 답이 없어요.

이러한 숲 벌채로 인해 고도가 제일 낮은 마을인 딸라가사리(Talagasari) 주민들은 가장 큰 가뭄과 식수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특히 까두뻘딱 지역은 2019년

까지 파이프로 연결된 수도 시설이나 관개 시설이 전혀 없고 저수지와 같은 엄봉(Embung)이나 강도 없기 때문에 14개의 마을이 식수와 농업용수를 우물이나 지하수에만 의존해 사용하고 있었다(BPS Kabupaten Kadupandak, 2020: 61-62). 숲의 벌채는 물을 가두는 나무가 사라짐에 따라서 우물이나 지하수의 수량 저하로 나타나고 있었다. 즉 까두빤딱 지역의 특성상 숲은 직접적으로 물을 저장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숲 벌채로 인해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주민들의 생존권은 위협을 받고 있었다.

S의 여성들은 숲 파괴와 물 부족으로 인해 가사노동과 농업노동의 증가와 함께 농사, 먹거리, 위생과 건강을 비롯한 일상 전반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방 정부는 마을 주민들의 벌목 중단 요구에도 어떠한 변화 없이 계속해서 벌목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S의 여성들은 숲 벌목과 물 부족의 문제에 관해 개인적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S라는 조직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마을과 지역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S는 여성농민의 독자적인 이름으로 지역의 거버넌스 체계에 직접 개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마을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숲 벌채와 관련하여 S의 여성농민들은 까두빤딱 면장에게 2018년에 처음으로 공식 면담을 요청했다. 마을 단위 여성농민단체의 이름으로 면장과 공식 면담을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당시 면담에서 까두빤딱 면장은 자신이 발령받은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 벌채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까두빤딱 면장: 국영영림공사의 벌채와 관련해서 그것은 우리가 관장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국영영림공사는 중앙 정부 아래에 있습니다. 국영영림공사가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문제를 만들고 있어요. 불법 벌채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앞으로 산림부와 협상해 보겠습니다.(2018년 5월 7일 면장과 S 대표와의 면담 내용)

파히자: 모를 수가 없어요. 아마 그들 사이에 비밀 협약이 있을 거예요.

면장과 면담을 진행한 S의 대표이자 왈가아시 마을에 사는 파히자는 면장이 모를 수가 없고 아마도 군청과 국영영림공사, 면사무소 간에 비공식적인 협약이 존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사실 S가 결성되기 전에 여성들은 물 부족 문제에

대해 이장에게 개인적인 불편을 전달하는 정도에 그쳤지만, 파히자는 S라는 조직의 이름으로 공식적인 면담을 요청하고 특히 면장에게 여성농민의 요구를 전달하는 장을 마련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S의 자문을 자처하는 남성회원인 아윌은 자신의 남성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면담 요청 과정을 도왔다. 왜냐하면 대부분 남성으로 대표되는 마을 지도자, 이장, 면장을 비롯한 지방 정부의 대표들 간 거버넌스 구조 안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실천하기 위해선 남성연대의 조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렇듯 S는 면장과의 면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면사무소에 공식 면담을 요청하고 자신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각도로 노력했고 그 결과 여성농민의 이름으로 면담을 진행하는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었다.

S의 여성농민들은 대부분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국내외 이주노동 경험을 가지고 있는 소농으로 지역 내에서 여성 대표성을 갖는 것이 쉽지 않다. 게다가 S는 활동 기간도 짧고 지역 네트워크가 거의 부재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단체 Z와의 연대 및 초국적 개발 프로젝트의 지원을 받고 있는 다층적 위치성 속에서 여성농민의 이름으로 지역 내 가부장적 거버넌스 구조에 큰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었다. S의 여성농민들은 마을의 숲 벌채와 물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태위기에 순응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목소리를 조직화하고 집합적인 대응으로 공식적인 의사결정과정에 개입하기 위해 도전하고 있었다. 마을의 여성들은 S의 활동을 통해 기후변화를 비롯한 생태위기에 수동적인 피해자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인 행위자로서 대응하고 숲과 물을 지키기 위한 저항적 실천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 2. 여성농민의 경제적 역량강화와 농업 가치사슬의 확장

S의 여성농민들은 대안농업을 통해 직접 생산한 쌀을 매개로 가족과 마을 내 관계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지역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등 농업의 가치사슬을 확장시키고 있었다. 여성들은 유기농으로 전환한 땅에서 개인과 공동체가 생산한 쌀의 양이 매년 늘어나 가족들이 자급하고도 쌀이 남게 되자 판매를 계획하게 되었다. 특히 딸라가사리와 간다사리(*Gandasari*)의 빠우유반 회원들은 어떻게 쌀을 판매하면 좋을지에 대해 매 회의에서 방안



을 모색해 왔다. 그러나 여성농민들이 새로운 판로를 만드는 것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소비자와의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야 하는 어려운 일이었다. 특히 여성농민이 유기농으로 생산한 쌀을 관행 농사로 지은 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받기 위해서는 유기농 먹거리에 대한 이해가 있는 소비자와의 신뢰가 선행되어야 했다.

간다사리 마을의 빠구유반 회원들은 잉여의 유기농 쌀을 기존의 시장에서 1kg당 1만 루피아에 팔았는데 이는 관행 농사로 지은 쌀 가격이 8,000루피아인데 반해 약 25%를 더 받는 것이었다. 이와 달리 소비자와의 직거래를 형성한 딸라가사리 마을 빠구유반의 경우 유기농 쌀 1kg당 2만 루피아를 받을 수 있었다. 즉 딸라가사리 마을의 빠구유반은 농업의 가치사슬을 넓히면서 자신의 생산물에 대한 교환가치를 높일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딸라가사리 마을 빠구유반은 더욱 적극적으로 농업의 가치사슬 확장에 집중해 왔는데, 빠구유반의 대표 아티파는 이러한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아티파: 저희 빠구유반은 2019년부터 쌀 사업을 시작했어요. 우리 회원들이 생산한 좋은 품질의 쌀은 시내에 내다 팔고요. 품질이 좋지 않은 쌀은 크래커 간식으로 만들어서 팔아요. (...) 지금은 유명해졌어요. 우리가 생산한 쌀이 품질이 좋고 유기농이라 가격이 좀 더 비싸도 소비자들이 일부러 찾아요. 지역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저희 유기농 쌀을 전시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요.

아티파는 딸라가사리 빠구유반의 이름인 큰 농부(*Jembar Tani*)라는 이름을 그대로 상품명으로 사용하면서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생산한 유기농 쌀과 간식을 공동 판매하고 있었다. 현재 딸라가사리 마을의 빠구유반 회원들이 생산한 쌀과 간식은 짜안주르 지역 시내의 도매상과 아티파의 아들을 통해서 알게 된 끄라왕(*Kerawang*)<sup>8</sup> 지역의 유기농 소비자 모임에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이들은 끄라왕 지역의 판매처와 직거래 판로를 형성함으로써 기존의 시장에서 받

<sup>8</sup> 짜안주르군과 멀지 않은 서부 자바의 지역 중 하나인 끄라왕은 자카르타에서 동쪽으로 약 51km 떨어진 지역으로 인구는 약 30만 명(인도네시아 통계청, 2020)에 이르고 쌀 생산으로 유명한 지역이다.

는 쌀값의 2배를 받고 있다. 즉 유기농 먹거리에 대한 이해가 있는 소비자들과의 신뢰에 기반한 사회적 관계라는 농업의 가치사슬 확장은 유기 농산물의 교환가치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딸라가사리 빠구유반의 활동에 참여하는 마을 여성농민 회원이 늘기 시작했다. 이러한 딸라가사리 빠구유반의 성과는 S의 대표적인 성과 사례로 소개되면서 지역의 공식적인 행사에도 초청되는 등 공적인 영역으로 활동을 넓혀 가고 있었다. 지방 정부의 공식적인 행사가 있을 때마다 딸라가사리 마을의 빠구유반 회원들은 직접 가판대를 차려서 자신의 생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기도 했다. 결국 대안농업을 통한 땅과 작물의 변화는 쌀의 변화로 연결되고 다시금 여성농민과 소비자와의 사회적 관계를 만들면서 이러한 다중 간의 연결은 새로운 시장과 지역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딸라가사리 마을 빠구유반의 성과에 대해 Z 활동가 아민은 S 조직의 조합화에 대한 고민을 내비쳤다.

아민: 최근에 딸라가사리 마을의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쌀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고요. 딸라가사리는 까두뻘뻘 시내와 지리적으로 가까워요. 매주 토요일에 시장이 서는데 거기에도 판매를 하는 것 같아요. 쌀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의논을 하고 있어요.

아민은 딸라가사리 마을 빠구유반의 회원이 늘어나고 소비자들의 유기농 쌀에 대한 수요가 늘자 빠구유반의 이름이 아닌 마을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쌀 판매를 좀 더 안정적으로 하는 것은 어떤지에 대해 함께 의논하고 있다고 말했다. 딸라가사리 빠구유반의 활동이 이렇게 판매 성과를 보이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리더의 역할에 있어서 평생 농사를 지어온 빠구유반 대표인 아티파의 생태 감각과 생태 지식이라는 역량이 리더십으로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또한 딸라가사리 마을의 빠구유반 회원들은 최근 몇 년 간의 농지개혁을 통해 농지를 반환받는 과정에서 여성의 소유권 이전이 높았고, 이에 자신이 소유한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조건이 가능했다. 즉 S의 여성농민들의 경제적 역량강화를 위한 농업의 가치사슬 확장에는 대안농업을 통한

생산성의 증가, 공동체의 조직화와 리더십을 통한 접근성 확보, 농지 소유라는 조건이 필요한 것이다.

S의 여성농민들은 농업의 가치사슬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도모하고 있었는데, 이는 자급자족의 생계를 벗어나서 경제적 소득을 얻길 원했기 때문이다. 농업의 가치사슬을 높이는 일은 개인이 혼자서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S 활동과 더불어 여성농민의 조직화, 대안농업을 통한 농산물의 생산량 증가, 먹거리 가공 기술 등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 역량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듯 생태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대안농업 실천이라는 S의 활동은 계속해서 외연을 넓혀가고 있었는데, 그 원동력 역시 유기농 쌀과 같은 생태적인 먹거리가 주요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S의 여성들은 대안농업의 가치가 담긴 유기농 쌀을 중심으로 새로운 소비 시장과 관계성을 형성하고 농업의 가치사슬을 확장하는 등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을 키워 가고 있었다.

### 3. 여성농민의 대안농업운동을 통한 생태시민성 실천

찌안주르 지역 S의 여성농민들은 대안농업을 실천하고 다양한 비공식 교육을 통해서 여성농민으로서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과 문제를 인식하는 가운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태시민성을 실천하고 있었다. 사실 S의 여성들은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문화적·경제적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그러나 여성들은 S의 활동을 통해 대안농업을 비롯한 성평등 및 경제 워크숍과 같은 비공식 교육에 참여할 수 있었고 생태적 의식과 여성 권리에 대한 인식을 고양할 수 있었다.

조이스: 첫 교육이 이번에 있었던 젠더 리더십 교육이었어요. 교육은 재밌었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좋았어요.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성평등에 관한 내용이에요. 남성과 여성이 같다는 이야기 말이에요. 여성은 남성에 비해 이등 시민이라는 것을 공감해요. (...)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 보고 싶어요. 농사지어서 판매도 해보고 경제적으로 자립해 보고 싶어요. (...) 그래서 나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싶어요.

리사: 여기에는 여성농민 조직이 없어요. 이 마을의 여성들은 뭔가를 할 수 있길 원해요. 여성은 아이를 기르고 요리하고 집안일만 해요. 여성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을에 많은 여성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길 원해요. 가족만을 위한 일이 아닌 이웃을 위해서도 일하고 있어요. 더 많은 일들을 결정할 수 있길 원합니다.

조이스와 리사는 가족과 마을 내의 의사결정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없게 만드는 가부장적 구조에 대해서 교육을 통해 이해할 수 있었고 특히 마을 법과 규약이 여성들에게도 열려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여성들은 마을의 다양한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더 나아가 스스로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느끼게 되었다. 조이스와 리사를 비롯한 S의 여성농민 회원들은 이러한 무형의 비공식 교육을 통해 가족과 마을 내 가부장적 문화의 토대를 바꾸어 낼 수 있는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특히 여성농민 독자 조직으로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S가 자신과 가족, 마을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거점이자 중요한 장소성을 가진 조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S의 여성농민들은 엘리트 여성이 아닌 대부분 공식 교육을 받지 못한 여성소농으로 아직 조직화의 역사가 짧고 정치화의 경험도 적다. 심지어 이들은 땅을 비롯한 경제적 자원과 수단을 충분히 가지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는 지역의 가부장적 거버넌스의 구조라는 한계적 상황 속에서 의미 있는 여성농민 대표성을 발현하고 있었다. S의 대표 파히자는 지금도 씨안주르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농지개혁운동을 통해 S의 이름으로 공동체 텃밭을 반환하기 위해서 여성농민의 이름으로 지방 정부와 협상하고 있었다.

파히자: 여기에는 플랜테이션 농장이 두 곳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인 씨아스타나 고무 농장이 800헥타르 정도 돼요. 농장의 땅이 저희 마을을 포함해서 6개 마을에 걸쳐 있는데 정부로부터 대여 기간이 끝난 곳도 있어서 이 땅에 대해서 농지개혁을 요구하고 있어요. 마을 사람들이 무상으로 땅을 받는 거죠. 계속 정부로부터 기다리고 있어요...저희도 여성농민회의 이름으로 지방 정부에 농지개혁을 요구하고 있어요. (...) 까두뻘까 부면장을 만났는데, 자연농법을 한다는 조건으로 S에 땅을 주

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땅을 못 받았어요. 저희 마을 대표에게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보니깐 땅을 다 나누어 주어서 줄 땅이 없다는 거예요.

2000년대 이후부터 씨아스타나 고무농장이 걸쳐 있는 6개 마을의 주민들은 씨안주르 농민단체인 PPC와 Z를 통해 농민협의체를 만들고 지방 정부와 함께 농장의 땅을 농민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농지개혁을 요구해 오고 있다. 일부 마을은 농지개혁을 통해 지방 정부로부터 땅을 지급받았고 아직도 협상 중에 있는 마을도 있다. 이에 S는 개인이 아닌 여성농민조직의 이름으로 지방 정부에 농지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S는 지방 정부에 여성농민들이 공동으로 경작 할 땅을 각 마을 단위 빠구유반의 이름으로 반환해 달라고 요청했다. 파히자는 까두빘딱 부면장 및 이장과 같은 농지개혁과 관련이 있는 의사결정권자들과 직접 만나고 협상하는 가운데 여성농민의 대표성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었다. S는 아직 농지반환이라는 구체적인 결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지역의 가부장적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농민의 이름으로 적극 개입하면서 여성농민운동의 외연을 확장하고 여성 대표성을 발현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 주고 있다.

S의 활동이 마을과 지역 내에서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각 빠구유반은 S의 이름으로 마을 협의체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S 활동 전에는 가족 내 어머니 또는 부인으로 호명되어 왔던 여성들이 S 활동을 통해서 여성농민, 빠구유반 리더, 대표와 같은 사회적·정치적 지위를 인정받는 가운데 마을과 지역의 의사결정과정에 여성농민의 대표성을 실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더욱이 마리암에 따르면 S는 면과 리 단위뿐만 아니라 군 단위의 지방 정부와도 관계를 확장해 가고 있었다.

마리암: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을 하면서 군청으로부터 행사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S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참여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절했죠.

마리암에 따르면 2018년 이후 매년 씨안주르 군청은 S를 독자적인 단체로 지역 행사에 초대하고 농산물 홍보 전시에 참여할 것을 제안해 왔다. S의 회원들은 직접 생산한 유기농 퇴비와 유기 농산물을 행사에 전시하는 등 군청의 요구에 협력하며 S의 활동을 홍보해 왔다. 그러나 문제는 군청이 S를 지역의 홍보를

위한 자원으로 활용하는 반면, 여성농민들이 정부로부터 도움을 필요로 할 때에는 S에 다양한 협상 조건을 제시하며 갈등을 부추겨 왔다는 것이다.

S는 관행농업을 하는 다른 여성농민조직과 다른 S만의 독자성을 지키길 원했다. 특히 면사무소는 계속해서 S가 리 단위의 여성농민회인 KWT(*Kelompok Wanita Tani*)의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정부 산하 단체로 활동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는 면사무소가 S를 정부 산하 단체로 소속시킴으로써 면사무소의 상위 조직인 군청으로부터 여성농민과 친환경농업에 관련된 더 많은 지원과 예산을 요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S의 회원들은 면사무소나 군청의 경제적 지원을 거절하고 여성농민 스스로 꾸려 온 대안농업운동 단체로서 S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지키길 원했다. 이러한 S 회원들의 커다란 변화에 대해 S를 지원하고 있는 단체 Z의 대표 야야는 여성들이 생태적인 농민이자 시민이 되어 가는 주체의 변화에 주목한다.

야야: 여성들 스스로 집합적 운동을 만들어 낼 수 있게 되었는데, 저희는 이것을 전환적 인식(transformative awareness)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과정은 저희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 자신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의식을 가지게 되면 사업이 끝나고 기금이 지원되지 않아도 변화는 계속 일어나요. (...) 지난 몇 년간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를 들어 여성들은 군수와 면장 앞에서 직접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전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전에는 마을의 이장도 만난 적이 없었거든요. 여성들이 저희의 도움 없이 스스로 발표를 준비하고 군수와 면장 앞에서 단체를 소개하고 협상을 해냈어요.

야야가 지적하는 것처럼 S의 여성농민들은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웃과 마을, 지역에서 관계성을 확장하고 농사를 짓고 먹거리를 가공 판매하는 등 농업 가치사슬을 확대하며 자신이 사는 마을의 전기시설이나 수도 등 인프라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지방 정부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 마을 단위 각 빠구유반에서 여성들은 마을과 지역의 가부장적 의사결정구조에 여성농민의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었다.

찌안주르 지역의 남성 중심 의사결정구조와 성별 권력관계가 여전히 S의 다양한 시민적 실천을 수용하지 않거나 기존의 제도적 구조 안으로 흡수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S의 여성들은 S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여성농민운동의 외연을 확장해 가고 있었다. 여전히 여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마을의 숲은 사라지고 있고 물 부족으로 인해 농업용수뿐만 아니라 마실 물과 생활용수도 부족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는 단순히 지역 주민들의 환경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 주민들의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전반에 걸친 일상의 관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에 S의 여성들은 숲과 연결된 생존권의 문제 외에 생태적 윤리와 책임의 문제에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로 논의를 확장하고 있었다. S의 여성농민들은 마을의 숲 벌목과 물 부족 문제에 대해 여성농민의 대표성을 실천하는 동시에 여성농민의 요구를 공론화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생태시민적 실천을 확대하고 있었다.

## VI. 결론

현재 국제개발협력은 기후변화와 생태위기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생태에 관한 새로운 관점과 실천 전략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기후변화와 생태위기에 취약한 여성농민이 갖는 여성문제와 환경문제라는 이중적인 억압과 교차하는 불평등의 정치학 속에서 국제개발협력은 어떠한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본 연구는 개발협력의 이행과 추진, 전략과 방향성의 모색에 있어서 생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안한다. 반세기 동안 국제사회는 개발도상국 농촌 지역 여성의 역량강화 프로젝트를 실행해 왔지만, 여성의 시민권 실현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여성의 시민권 문제는 시민권이 어떻게 형성되고 누구에게 자격을 부여하는가의 문제와 연결된다. 따라서 생태적 고려가 없는 기존의 제도와 규범, 체계의 패러다임 전환 없이는 현재의 기후변화와 생태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 불평등은 해결이 어려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아시아 지역 시민사회 농촌개발협력 사례연구를 통해 S라는 여성농민 조직이 결성되고 여성농민운동의 외연을 확장해 나가는 변화 과정의 핵심적인 힘이 생태로부터 출발하고 있음을 규명하고 있다. S의 여성농민들은 대안



농업 실천을 통해 땅, 종자, 작물과 같은 생태와의 관계성을 변화시키고 조직 운영, 교육, 농업, 판매, 거버넌스 참여 등 다층적 활동을 통해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고 있었다. S의 여성농민들은 대안농업 실천과 운동을 통해서 농지개혁, 숲 파괴와 물 부족의 문제, 인프라 지원, 여성농민의 대표성을 공적 영역에서 실천하는 가운데 지역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었다. 이는 여성농민에 대한 기존 논의가 환경의 피해자이거나 수동적 주체, 모성적 돌봄자, 농업 생산자, 정치적 저항자라는 호명을 넘어서 여성들이 어떻게 생태를 중심으로 지역과 국가의 변혁자로서 위치성을 가질 수 있는지 성평등과 생태시민성의 실천 과정을 통해 그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 여성농민의 조직화와 대안농업 실천이라는 시민사회 개발협력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여성농민들의 성평등과 생태시민성 실천 과정을 밝힘으로써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인간과 생태의 새로운 공존 관계를 모색하는 데 있어서 생태를 중심으로 시민성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 밝히고 있다. 여성농민들은 역량강화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대안농업을 통해 생태와의 관계성을 변화시키고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생태적이고 시민적인 경험 세계를 재구축해 나가는 동시에 지역의 사회변화를 이끄는 행위자로서 새로운 주체되기의 과정을 발현하고 있었다. 또한 역량강화 프로젝트를 통해 여성농민 조직을 만들고 대안농업운동을 통해서 땅, 종자, 작물과 같은 생태 전반을 변화시키는 가운데 가족, 마을, 지역에 착근된 가부장적 불평등 구조와 여성 시민권의 부재에 대항하는 적극적인 행위자이자 변혁자로 위치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국제개발 및 지역과 국가의 사회적 시스템이 생태를 고려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생태적 패러다임 전환의 가능성에 대해 더 많이 논의하기를 긴급히 요청한다. 또한 현재의 생태위기와 여성농민 문제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생태적이면서도 집합적인 실천과 연대가 어떻게 지역적, 국가적, 초국가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해 실효성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결국 기후변화와 생태위기에 대응하는 국제개발협력의 규범과 협약, 시스템의 변화를 위해 지역에서부터 국가, 초국가적 단위에서 여성들의 참여와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의 사례가 분석하고 있는 여

성들의 생태와의 새로운 관계성에 기반한 성평등과 생태시민성의 실천 과정이 어떻게 구체적인 국제개발협력의 제도와 이행으로 연결되고 지역과 국가 시스템의 생태적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에 대한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투고일: 2023년 6월 19일 | 심사일: 2023년 7월 8일 | 게재확정일: 2023년 7월 31일

## 참고문헌

- 김은경·김경주·이영인. 2012.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농촌개발 과정에 나타난 여성참여 사례 분석.” 『여성연구』 82권 1호, 209-245.
- 김동환·김용택·김진우. 2017. 『KOICA 농산물 가치사슬확대 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판교: 한국국제협력단.
- 김효정. 2023. “기후위기 시대 여성농민운동의 생태적 전환과 다중 간 관계성의 변화.” 『한국여성학』 39권 2호, 141-169.
- 박순열. 2010. “생태시티즌십(ecological citizenship) 논의의 쟁점과 한국적 함의.” 『ECO』 14권 1호, 167-194.
- 법무부. 2018. “다문화·다민족사회의 사회통합 정책 연구.” 법무부.
- 조형. 2007. “여성주의 시민화 시대의 시티즌십과 시민사회.” 이화리더십개발원 편. 『여성주의 시티즌십의 모색』.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Akter, Sonia et al. 2017. “Women’s Empowerment and Gender Equity in Agriculture: A Different Perspective from Southeast Asia.” *Food Policy*. 69, 270-279.
- Azahari, Hasri. 2008. “Indonesian Rural Women: The role in Agricultural Development.” *Analisis Kebijakan Pertanian*. 6(1), 1-10.
- BPS Kabupaten Kadupandak. 2020. “Kecamatan Kadupandak Dalam Angka 2020.” <https://cianjurkab.bps.go.id/publication/2020/09/28/cb9f4d40e70d668c6d484221/kecamatan-kadupandak-dalam-angka-2020.html>(검색일:2023. 7. 20.).
- Cianjur Regency Statistical Bureau. 2020. “Cianjur Regency in Figures 2020.” <https://cianjurkab.go.id>(검색일:2023. 7. 20.).
- De Vos, R. and I. Delabre. 2018. “Spaces for Participation and Resistance: Gendered Experiences of Oil Palm Plantation Development.” *Geoforum*. 96, 217-226.

- Dobson, Andrew. 2003. *Citizenship and the Environment*.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FAO. 2011. "The Role of Women in Agriculture." FAO. <https://www.fao.org/3/am307e/am307e00.pdf>(검색일: 2023. 7. 20.).
- \_\_\_\_\_. 2017. "FAO and Government of Indonesia Country Programming Framework (2016-2020)." FAO. <https://www.fao.org/3/i7907en/i7907EN.pdf>(검색일: 2023. 7. 1.).
- Fraser, Nancy. 1990. "Rethinking the Public Sphere: A Contribution to the Critique of Actually Existing Democracy." *Social Text*. 25, 56-80.
- Gaard, Greta. 2017. *Critical Ecofeminism*. Washington DC: Lexington Books.
- Glemarec, Yannick. 2017. "Addressing the Gender Differentiated Investment Risks to Climate-smart Agriculture." *Agriculture and Food*. 2(1), 56-74.
- Heyzer, Noeleen. 1986. *Working Women in Southeast Asia: Development, Subordination and Emancipation*. Philadelphia: Open University Press.
- IFPRI. 2012. "Women's Empowerment in Agriculture Index." IFPRI. <https://www.ifpri.org/publication/womens-empowerment-agriculture-index>(검색일: 2023. 7. 20.).
- IPCC. 2014. *Climate Change 2014: Synthesis Report*. Geneva: IPCC.
- Jatayu, Anoraga et al. 2020. "A Quantitative Approach to Characterizing the Changes and Managing Urban Form for Sustaining the Suburb of a Mega-Urban Region: The Case of North Cianjur." *Sustainability*. 12(19), 80-85.
- Lister, Ruth. 1998. *Citizenship: Feminist Perspectives*. New York: NYU Press.
- Macgregor, Sherilyn. 2006. *Beyond Mothering Earth: Ecological Citizenship and the Politics of Care*. Vancouver: UBC Press.
- Mies, Maria and Veronika Bennholdt-Thomsen. 1999. *The Subsistence Perspective: Beyond the Globalised Economy*. London: Zed books (꿈지모 역. 2013. *자급의 삶은 가능한가: 힐러리에게 암소를*. 동연).
- Mies, Maria and Vandana Shiva. 2000. *Ecofeminism*. London: Zed books (손덕수·이난아 역. 2020. *에코페미니즘. 창작과비평사*).
- Mouffe, Chantal. 1992. *Dimensions of Radical Democracy: Pluralism, Citizenship, Community*. New York: Verso.
- Novirianti, Dewi. 2010. "District Legislation and Access to Justice: A Case Study

- of Female Migrant Workers in Cianjur.” *Law, Social Justice and Global Development Journal*. 15.
- O’Shaughnessy, K. 2009. *Gender, State, and Social Power in Contemporary Indonesia: Divorce and Marriage Law*. New York: Routledge.
- Phahlevy, R. 2016. “The Concept of Village Autonomy in Indonesia(Indonesian Constitution Perspective).” *Rechtsidee*. 3(1), 27-40.
- Pyle, David. 1985. “Small Scale Enterprise and Women.” C. Overholt, M. Anderson, K. Cloud, and J. Austin, E., eds. *Gender Roles in Development Projects*. Connecticut: Kumarian Press.
- Raharto, A. 2002. *Indonesian Female Labor Migrants: Experiences Working Overseas*. Indonesian Institute of Sciences.
- Rowlands, J. 1997. “Questioning Empowerment.” *Working Women in Honduras*. Oxfam: Dublin.
- Saturi, Sapariah. 2015. “Indigenous Women and Land Rights in Indonesian Agrarian Conflicts.” *Indonesian Feminist Journal* 3(1), 60-69.
- Salim, A., W. R. Bulan, B. Untung, I. Laksono, and K. Brock. 2017. “Indonesia’s Village Law: Enabler or Constraint for More Accountable Governance?.” *Making All Voices Count Research Report*. Brighton: IDS.
- Sharma, P. 2012. *Ecology and Environment*. New Dehli: Rastogi Publications.
- UN Women. 2013. “Annual Report 2012-2013.” UN Women. <https://www.unwomen.org/en/digital-library/publications/2013/6/annual-report-2012-2013>(검색일: 2023. 7. 20.).
- \_\_\_\_\_. 2015. “Progress of the World’s Women 2015-2016. Transforming Economies, Realizing Rights.” UN Women. [http://progress.unwomen.org/en/2015/pdf/UNW\\_progressreport.pdf](http://progress.unwomen.org/en/2015/pdf/UNW_progressreport.pdf)(검색일: 2023. 7. 20.).
- Voet, Maria Christine Bernadetta. 1998. *Feminism and Citizenship*. London; Thousand Oaks.
- Wambui, J. 2013. “An Introduction to feminist research.” University of Nairobi. <http://erepository.uonbi.ac.ke/handle/11295/84523>(검색일:2023. 7. 20.).

## Abstract

## Advancing Gender Equality and Ecological Citizenship through Civil Society Organizations' Rur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Asia: Returning Indonesian Migrant Women

Hyojeong Kim Deputy Director, Ecofeminism Research Center

This study aims to elucidate how women peasants are reconfiguring their community through alternative agriculture to practice gender equality and ecological citizenship through civil society rur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Asia in the era of the climate crisis, especially the empowerment project of women peasants in Indonesia. In sustainable development, gender and environmental issues have been addressed as important goals and strategies for cross-cutting issues, and ecological citizenship has been discussed as a new ecological ethic and practice in response to the problem of global climate change. However, there is a lack of discussion on how to realize gender equality and sustainable ecological citizenship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herefore, this study revealed, from the perspective of gender equality and ecological citizenship, how returning migrant women become peasants through a civil society rur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 that supports alternative agriculture training and business for returning migrant women, focusing on the Cianjur district, which has a high proportion of transmigrant women in West Java, Indonesia. It conducted a feminist case study in Cianjur on a rural development project implemented from 2015 to 2019 with support from Japanese civil society. Research findings

show that women peasants in Cianjur are transforming their relationship with ecology through alternative agricultural practices and strengthening their ecological,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capacities through multi-layered activities. They are also pushing for local change in land reform, addressing deforestation and water scarcity, infrastructure support, and the representation of women peasants in the public sphere. Ultimately, in order to alter the norms, customs, and system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and ecological crises, tangible steps must be taken to expand women's engagement and representation at the local, national, and transnational levels.

**Keywords |** Climate crisis, Ecological citizenship, Gender equality, Civil society organizations, Rural development cooperation, Women Peasant of Indonesia, Returning migrant women